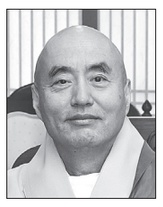
"복지재단 씨앗, 열매로 성장"

조계종복지재단 상임이사에 보인 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신임 상임이사에 보인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2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보인 스님에게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임명장을 전달했다. 보인 스님은 "그간 재단이 20년 이상 노력으로 심은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질 것"이라며 "부처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갖고 수탁시설들과 협의 하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제26회 불교언론문화상 '성료'

뉴미디어 최우수상 '한마음선원'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제26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한마음선원 영상포교부는 공식 유튜브 채널로 뉴미디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영·독어로 번역된 자막을 탑재한 대행 스님 법문, 연등축제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불교 대중화 및 세계화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지원 기자**



지역주민과 나눈 따뜻한 한 끼

대구 자혜불교대학, 팥죽대중공양 펼쳐

대구 달서구 대응공사 자혜불교대학(학장 도경)은 12월 19일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민화합과 건강을 위해 주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팥죽대중공양을 실시했다. 행사에는 자혜불교대학장 도경 스님,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학장 도경 스님과 한마음봉사단 20여 명은 매년 사정상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가정을 직접 방문, 음식을 전달하는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외에도 도경 스님은 매달 격주로 무료급식봉사와 문화공연, 후원금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소외계층 돕기에 매진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여성붓다' 텐진 빠모 5년 만에 방한한다

1월 5~6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티베트 불교서 계 받은 이후
12년간 히말라야 동굴서 수행
마음공부의 요결 전수할 예정

티베트 불교 계를 받은 첫 서양여성 텐진 빠모(Tenzin Palmo) 스님이 5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는다. 12년간 히말라야산 깊은 동굴에서 홀로 수행한 텐진 빠모 스님은 세계적인 명상가로서 '여성붓다'라고도 일컫는다.

텐진 빠모 스님은 내년 1월 5~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서 '마음과 친구하기'라는 주제로 명상법회를 이끌 예정이다. 행사 주관은 세첸코리아가 맡았으며, 선착순 25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나는 여성의 몸으로 깨달음을 얻겠노라 서원했다"는 말로 널리 알려진 텐진 빠모 스님이 대중에게 어떤 가르침을 전할지 기대를 모은다.

텐진 빠모 스님은 1943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다. 평소 영적인 관심이 많은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8세 되던 해 불교서적을 읽으면서 스스로 불자임을 느꼈다고 전한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도서관에서 일하다 영적인 길을 추구하고자 1964년 인도로 건너갔다.

텐진 빠모 스님은 티베트 망명스승들이 동자승을 교육하는 북인도 학교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종이에 적힌 '캄트롤 린포체' 이름을 보고 귀의의 마음을 품었다. 이후 캄트롤 린포체를 만나 서양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티베트 교단 사미니계를 받았다. 티베트 불교에서 아직 비구니계를 주지 않았지만 1973년 홍콩에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텐진 빠모 스님은 1970년부터 히말라야산 해발 4000m에 위치한 사방 1.8m 크기의 작은 동굴에서 하루 3시간만 잠을 자며 12년간 수행했다. 첫 9년은 가끔 세속에 나와 사람을 만나기도 했지만 마지막 3년은 누구도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수행자 양성을 위해 2005년 동규 갓찰링 사원을 설립하고, 3년간의 무문관 과정을 도입해 똑덴마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2008년에는 둑빠 까규 법왕으로부터 여성수행자 최고 지위인 '제쭌마'를 받았고, 달라이 라마에 의해 '6인의 서양 비구니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2013년 11월 우리나라를 방문한 텐진 빠모 스님은 "많은 이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묻는다. 살고 죽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여기에 집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중요한 것은 붓다의 딸과 아들로 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게 우선이다. 부처가 육바라밀을 강조한 이유를 곰곰이 되새겨보고 붓다의 딸과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육바라밀의 실천을 당부했다.

또한 스님은 "인생의 난국을 통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행복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닥쳐도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관하는 세첸코리아는 "이번 명상법회에서 텐진 빠모 스님이 마음의 구체적인 성품과 작동을 알고, 변화를 볼 수 있는 마음공부 요결을 전수할 예정"이라며 대중의 관심을 당부했다.

조계종 중앙·산하기관, 양양서 워크숍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360명
"실추된 불교 위상 되찾자"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을 비롯해 산하기관 등 교역직 스님과 일반직 종무원들이 강원도 양양에서 워크숍을 마쳤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제36대 총무원 집행부 출범을 맞아 종단운영에 대한 기조와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전체 종무원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12월 13~14일 양양 낙산사 일원서 2018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비롯한 80여 명의 교역직 스님과 280여 명의 일반직 종무원 등 총 360여 명이 참가했다. 교역직과 일반직 종무원 전체가 참여한 워크숍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 낙산사 해수관음보살상 앞에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교역직 스님과 일반직 종무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양양군민체육센터서 열린 입재식에서 원행 스님은 "우리는 화합과 혁신으로 미래불교를 열어갈 것을 다짐하고, 실추된 불교 위상을 다시 되찾고자 함께하고 있다"며 "모두 힘을 합쳐 한국불교라는 배가 순항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차게 노를 저어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종무원들은 36대 집행부의 화합과 혁신, 미래라는 종단운영 3대 기조를 공유하는 한편, 이영경 교수(동국대 조경학과)를 초빙해 우리나라 국립공원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튿날에는 낙산사 참배가 이어졌다. 총무부장이자 낙산사 주지인 금곡 스님은 "2005년 화마로 인해 사찰이 소실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시 아름다운 도량으로 거듭났다. 종무원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도 신심과 원력으로 슬기롭게 잘 이겨내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윤호섭 기자**

오대산문 수행결사 입재

평창 월정사, 한암 스님 승가오칙 정진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12월 18일 대법륜전에서 오대산문 수행결사를 입재했다. 수행결사에는 월정사 사중스님과 오대암자 감원스님, 신도들이 동참해 4일간 월정사, 상원사, 중대사자암, 자연명상마을에서 한암 스님의 승가오칙(참선·염불·간경·의식·수호가람) 수행가풍을 잇는 정진의 시간을 보냈다. **윤호섭 기자**

저소득 가정 도운 화엄사

구례군에 총 500만원… 25세대 전달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12월 19일 구례군(군수 김순호)을 찾아 저소득 가정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500만원을 전달했다. 지역 내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자 마련한 기금은 행복바라미 캠페인을 통해 모연한 250만원과 화엄사 신도회 후원금 250만원으로 조성됐다.

이 기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기초생활수급자 25세대에 전달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여래종 창종 53주년 행사

창종주 인왕 스님 탄신일 다례재도



(재)한국불교여래종(총무원장 명안)은 12월 16일 금강약사사 큰법당에서 '창종 53주년 및 창종주 인왕 스님 탄신일 다례재'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총무원장 명안 스님을 비롯해 종회의장 석산 스님, 행정부원장 혜안 스님, 호법부원장 성현 스님, 비구니회장 묘선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제 54회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겨울캠프

원효스님의 열반 성지! 신라 화랑들의 기상이 담긴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수련을 위한 제54회 화랑수련회 겨울캠프를 개최합니다.
21세기 새로운 리더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신화랑 캠프! 자연속에서 공동체 수행생활을 체험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청소년 화랑수련회와 함께 하세요.

- 언 제 : 2019년 1월 6일(일) ~ 1월 12일(토) [1주간]
- 모집인원 : 60명
- 대 상 : 초등학생 ~ 중학생
- 수련회비 : 49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국민은행 823301-01-476572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 준 비 물 : 세면도구·수건·필기도구·양말·운동복·운동화·목도리·장갑 등
- 휴 대 금 지 : 현금, 휴대폰, MP3 등
- 예약 및 문의 : 054-775-1689
  054-744-1689
- 홈 페 이 지 : www.sunmudo.com

주요 프로그램

호연지기와 인성함양 프로그램
선무도수련과 힐링명상, 승마/국궁, 나를 찾는 108배, 예절교육
주지스님의 불교 강의와 발우공양 지도



원어민과 함께 하는 캠프
원어민 영어 회화 수업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수련 (원어민 사범지도)



문화유적지 답사를 통한 현장 학습
동경주 유적답사
기림사.감은사지.문무왕릉
역사교육체험-경주국립박물관



※ 본 프로그램은 종교를 초월한 청소년 인성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1500년 전통사찰 · 외국인 7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 선 무 도 화 랑 학 교

불전부·아함부·반야부
법화부·화엄부·정토부
붓다의 가르침
범본 한글 옮김 근본 육부 경전 정선

불전부 · 아함부 · 반야부 · 법화부 · 화엄부 · 정토부의 순서로 진행될 육부 경전 정선본은 병고 고익진 교수님께서 정선하시고 최봉수 교수님이 번역했다. 이 정선본의 강독은 매년 32강씩 7년에 걸쳐 이어질 계획이니, 많은 불자들이 "붓다의 가르침"을 따라 걸으며 부처님과 호흡을 함께 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 개강 : 2019년 1월 8일(화) 오후 7시 (2개월)
  - 제1강(오후 7시) - 제2강(오후 8시 20분)
- 내용 : 아함부 2 육육법설 법문(16강)
- 과정 : - 아함 1 : 십이처 십업설 법문(16강)
  - 아함 2 : 육육법설 법문(16강)
  - 아함 3 : 오온 · 사제설 법문(16강)
  - 아함 4 : 12연기설 법문(16강)
- 강의 : 최봉수 교수
- 장소 : 동산불교회관 2층 교육관 - 문의 : 02)732-1206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대학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02)732-1206~8 FAX. 732-1207 www.dongsanbud.net